

「言葉で学ぶ民族のこころ」

「先生、私の祖父は沖縄に連行された経験があります。そんな祖父は日本での辛い経験を、いつも私に話して聞かせました。だから、私は日本に勝ちたいと思って日本語を専攻しました。勝つためには、まず相手の国を知らなければならぬと考え、日本語を勉強することになったわけです」

韓国へ帰る前に、金哲洙さんはこう話しました。日本に強い関心を抱いていた彼が日本語を勉強す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が、そのような事だったとは夢にも思いませんでした。彼はまたこうも言いました。

「日本に来て二年経ちましたが、日本が好きになれません。でも日本に対する考えは、来る前とは少し変わりました。とにかく、まず日本が変わるべきなんです。日本の歴史教育が変われば、韓日関係だってよくなるだろうと思えますよ」

私たち日本人は、こういった韓国人の思いをどこまで理解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そう思いながら、私と韓国語との出会いを思い浮かべてみました。

私の韓国語学習の動機は単純でした。ある時私は一人の学生に注意されました。

「先生、私の名前は『リク タイセイ（陸泰星）』じゃなくて『ユク テソン』です。ちゃんと呼んでくださいよ。私は他の所でも、正しく呼ばれるまで絶対に返事しないこ

とにしているんです」

「あ、そうなんだ！ これからは彼等の名前を日本語読みではなく、原音で正確に発音しよう」そう考えて、私は韓国語の勉強を始めました。

私は詩が好きだったので、まず暇さえあれば、韓国語の詩を暗記し始めました。ある日公園を学生たちと散策しながら私は、尹東柱の「序詩」と金素月の「つつじの花」をそっと口ずさみました。

「先生、韓国語わかるんですか？ 詩の意味もわかって、詠んでいるんですか？ この詩は韓国の心ですよ。」

その一ヵ月後、彼女から「尹東柱」の詩集をもらいました。その本にはこう書いてありました。

「先生が韓国を理解なさる時に、少しでもお役に立てればいいのですが」

私はこの詩集をきっかけにして、日帝支配の下で詩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尹東柱の人生、そして彼が生きた時代に対する関心が、少しずつ深まっていきました。

さらに、日韓の歴史を単なる知識としてのみ知っていただけで、実は何もわかっていなかった自分に気がきました。たとえば『創氏改名』ということは知っていても、その時の彼等の心情にまでは考えが至っていませんでした。

族譜（チョッポ）を大切にする韓国人にとっては、名前を捨てさせられるということは、命を失うのと同じだったのです。『創氏改名』による彼等の大きな心の傷を、私はその時初めて知りました。それからというもの、私はもっ

ともっと彼等の名前を正確に読めるようになりたいと韓国語の勉強に励みました。

先ほどお話した金哲洙さんは、最後にこう言って帰っていきました。

「先生、不思議なんですけど、日本にいる時はいろいろ日本に反発ばかりしていたんですよ。だけど韓国に戻ると反対に、日本のことをなんのかのと騒ぎ立てる人を見ると、『何言ってるんだ。よく知らないくせに』って、いつも日本をかばう姿勢になるんですよ」

私はその時こう考えました。

国と国との理解は、こうした一人ひとりの経験、出会い、そして腹を割って話をする姿勢が備わってこそ、より深められていくのではないだろうか。

『死ぬ日まで空を仰ぎ 一点の恥ずる事なきを……

葉あいにとそよぐ風にも 我が心は痛む』

今日も私は序詩を口ずさみながら、韓国語の勉強に励んでいます。

언어로 배우는 민족의 마음

시마다 카즈코

“선생님,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오키나와에 징용된 적이 있어요. 그런 할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일본에서 지냈던 괴로운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이기고 싶어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상대국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셈이지요.”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김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 관심이 많았던 그가 일본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일본에 온지 2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이 좋아지질 않네요. 그래도 일본에 대한 생각은 오기 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하여간 일본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역사교육이 바뀌면 한일관계도 나아질거예요.”

일본사람들은 이런 한국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내 자신과 한국어와의 만남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 자신과 한국어와의 만남은 한국인 학생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겠다는 단순한 동기에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우선 저는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틈만나면 한국 시를 암

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들과 같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운동주의 서시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읊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시의 의미도 아시고 읊으신거예요? 이런 시는 한국의 마음이에요!”

그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녀에게서 운동주의 시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집을 계기로 일제지배하에서 시를 써야 했던 운동주의 인생 그리고 그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저는 일한 역사를 그저 지식으로써만 알고 있었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씨개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때 그들의 심정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족보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 사람에게는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창씨개명’에 의한 그들의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더더욱 한국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수 있도록 한국어 공부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일본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일본에 대해 반발만 했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반대로 일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말 하는 거야.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하며 일본을 감싸주

게 돼요.”

저는 그 때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해관계는 이런 개개인의 경험이나 만남 그리고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더욱 깊어져가는 것이 아닐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도 저는 서시를 읊어가며 한국어 공부에 힘 쓰고 있습니다.